

# 『徐廷柱 詩選』과 『新羅抄』의 비교분석

## - 무속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 영 광  
(고려대학교)

### 1. 문제 제기

『徐廷柱 詩選』(1956)과 『新羅抄』(1961)의 대표작들에 드러난 무속적 상상력의 일단을 대비 검토하여 이 둘의 관련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의거하여 서정주의 초기 시와 중기 시 사이의 연속성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歸蜀途』, 『徐廷柱 詩選』의 단계에서 서정주는 죽음의 혼돈에서 벗어나 삶의 세계로 귀환했다고 한다.<sup>1)</sup> 시의식의 이러한 변모는 『徐廷柱 詩選』에서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초기 시편들에서부터 예비되어 온 것이다. 서정주의 시가 절망, 혼돈, 일탈, 죽음으로 채색된 가운데서도 생명, 부활에의 모색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의식지향은 『花蛇集』(1941)의 「復活」, 『歸蜀途』(1946) 소재 「滿洲에서」,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등을 거쳐 『徐廷柱 詩選』의 「無等を 보며」,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上里果園」 등의 시편들에서 일관되게, 그리고 여실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뇌-죽음-부활’의 주

1) 조연현, 「서정주론」, 조연현 외,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공사, 1975, 17면.  
천이두, 「지옥과 열반」, 조연현 외, 위의 책, 29-30면 참고.

제적 맥락과 세계 인식의 성숙 과정을 고려하여 『花蛇集』에서 『徐廷柱 詩選』까지의 시기를 서정주의 초기 시세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서정주의 네 번째 시집 『新羅抄』는 그의 시의 전개 과정에서 사뭇 예상을 벗어난, 또한 이질적인 탐구의 소산으로 여겨지는 바가 있다.<sup>2)</sup> 서정주는 이 시집의 다수 시편들에서 『三國遺事』를 비롯한 역사서의 산문 전승을 시적 모티브로 차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독특한 자기 해석을 주제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수의 산문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 해석을 ‘신라정신’으로 집약함으로써 『新羅抄』의 세계에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적 변모에 대해서는 긍정<sup>3)</sup> 부정<sup>4)</sup>의 입장이 엇갈려왔지만, 설화의 미학적 재구성이라 할 서정주의 신라시편들이 어떠한 기원을 가진 탐구인가, 그의 이전의 관심에 어떻게 이어지는 모색인가를 특히 시 작품을 세심히 읽어 해명하려 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글은 『新羅抄』의 정신적 모색이 초기 시의 주요 맥락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속성을 해명하기 위한 근거를 이 글은 한국무속의 독특한 정신 현상과 사유방식에서 구하려 한다. 서정주 시의 무속적 특성을 지적한 기왕의 평설<sup>5)</sup>이 적지 않고, 근년에는

2) 다수의 논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은 김화영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많은 사람들이 『新羅抄』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미당이 이제서 격동의 현실을 두고 훨훨 날아가서 신선들이 노니는 고대 신라로 잠적해버린 것으로 알고 섭섭해 했었고, 회오리바람에 휘말린 시정의 사람들인 우리들과는 아예 아무 관계가 없는 시인이 되어버렸다고 외면하기도 했었다”(김화영, 『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64면).

3) 천이두, 「지옥과 열반」, 앞의 책, 236-240쪽; 김재홍, 「미당 서정주」,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192-193면.

4) 김종길, 「실험과 재능-우리 시의 현황과 그 문제점」, 『문학춘추』, 1964. 6. 212-214면;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조연현 외, 앞의 책, 163-167면; 이성부, 「서정주의 시세계」, 『창작과 비평』, 1972. 12. 749-751면; 최하림, 「체험의 문제-서정주에게 있어서의 시간성과 장소성(下)」, 『시문학』, 1973. 2, 23면.

5) 대표적인 것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김종길, 「시와 이성」, 『문학춘추』, 1964. 8; 김우창, 앞의 글;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9; 고은, 「서정주 시대의 보고-서정주 문학 전집」, 『문학과 지성』, 1973년 봄호; 김일규, 「속신과 신화의 서정주론」,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문덕수, 「신라정신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현실성」, 조연현 외,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공사, 1975; 오탁빈,

무속의 고유한 내용 요소인 신병(神病), 신관(神觀), 우주관, 세계관, 제의, 신명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연구들<sup>6)</sup>이 이어져 서정주의 정신적 면모는 물론 작품 내부에도 분석의 조명이 가해지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서이다. 이 글이 참고하려는 것은 무속적 입사 의식의 핵심적 체험에 해당하는 신병 현상, 이를 치유하고 사제로 거듭나는 성무(成巫) 과정, 그리고 무속의 원형에 해당하는 고대 무교(巫敎)<sup>7)</sup>이다.

신병은 강신무를 강신무이게 하는, 영력 획득의 필수 과정으로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 증세이다.<sup>8)</sup> 증상의 일단을 소개하면 다

「서정주의 비유와 모성심상」, 『사대논집』, 제19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94. 12; 황현산,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 『한국문학연구』, 제1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5; 김용직, 「초인의 역정. 또는 마그마 미학」, 『시와 시학』, 1996년 가을호.

- 6) 대표적으로, 이몽희는 서정주의 무속적 체질이 초기 시는 물론 중기 시의 신라 탐구 및 영원주의와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입무 고통과 제의’, ‘시공의 소거와 영원회귀’의 항목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한국 근대시의 무속적 구조 연구·김소월·이상화·이육사·서정주를 중심으로』,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88), 이상오는 신병 현상을 근거로 「자화상」의 화자가 무속적 인격 전환을 겪고 있음을, 그리고 『질마재 신화』의 시편들이 금기에 대항하는 집단적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화해와 조화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신병 현상을 적용하여 논구하였다(「미당 서정주론 - 무속적 사유체계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호원논집』, 제8호, 고려대 대학원총학 생회, 2000. 12). 김점용은 죽음 환상과 모성 환상을 통해 서정주 시의 시의식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과정에서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무교적 사유가 이 두 환상을 통합한다고 보았고(「서정주 시의 미의식 연구 - ‘죽음 환상’과 ‘모성 환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3), 오태환은 기왕의 무속적 사유와 내용 요소들을 더 엄밀히 시 분석에 적용하여 서정주의 시세계 전체를 무속적 상상력의 체계로 구성해냈다(「서정주시의 무속적 상상력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그리고 이영광은 서정주의 무속적 가치의식이 영원주의의 바탕이 됨을 불교 윤회론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서정주 시의 형성 원리와 시의식의 구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 7) 유동식은 ‘무교’를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났던 샤머니즘적 종교 현상 전체에 대한 명칭으로 ‘무속’은 현재의 민간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샤머니즘적인 현상에 대한 명칭으로 구분한다(「한국 무교의 종교적 특성」, 김인회 외,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30면). 이 글이 다루려 하는 무속적 정신현상은 원칙적으로 고금이 다를 바 없다고 여겨 논의의 불필요한 확대를 피해 현대 무속에 대해서는 ‘무속’으로, 그 역사적 명칭은 ‘무교’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음과 같다.

마음이 들떠 안정할 수 없으며 꿈이 많아지고 꿈속에서 신과 접촉하는 성스러운 장면을 본다. 꿈의 횡수가 많아지면서 의식이 희박해져 꿈과 생시의 구분이 흐려지며 이 상태에서는 생시에도 신의 허상, 환각, 환청을 경험한다. 이것이 심하면 미쳐서 집을 뛰쳐나가 산야를 헤매다닌다.<sup>9)</sup>

위의 증상은 “꿈에 신상(神像)을 본다든지 환각·환시·환청 등이 있어 보통의 병과는 다르”<sup>10)</sup>다는 다른 연구자의 비슷한 설명을 볼 때 신병 상태에서 지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요컨대 신병의 정신적 측면은 의식 해리 상태에서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이에 반응하여 신병자가 헛소리를 발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열 증상은 특히 서정주 초기 시의 어두운 충동과 분열의 국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신병은 “고뇌의 과정을 거친 낡은 자아의 포기, 또는 희생과 새로운 인격으로의 재구성”<sup>11)</sup>이라는 종교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고통 가운데 과거의 자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격을 얻음으로써 스스로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여 사제자로 거듭나는 것이 성무 과정의 마무리가 된다. 절망, 죽음의 혼란을 딛고 삶으로 귀환하는 서정주 초기 시의 역정은 한국 무속의 성무 과정과 적절한 유추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 시편들의 주제의식은 『三國遺事』를 비롯한 역사서의 산문전승에 있던 신비주의적 색채의 시적 재구성이다. 이는 서정주 개인의 무속이 고대 무교의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짐작된다. 천신신앙, 광명신앙을 종지로 하는 한국 무교가 신병을 필수로 하는 입무 과정이나 신인융합의 엑스터시 면에서 샤머니즘 일반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sup>12)</sup>, 그리고 이것이

---

8) 김태곤, 『한국무속 연구』, 집문당, 1995, 194면.  
9) 김태곤, 위의 책, 225면.  
10)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15면.  
11) 이부영,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김인희 외,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153면.  
12)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65~66면 참고.

“역사를 통해 다른 종교문화들과 혼합되면서 오늘의 무속 형태로 살아남았”<sup>13)</sup>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정주의 무교에 대한 관심은 『徐廷柱 詩選』과 『新羅抄』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는 데 유용한 참고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 전제에 의거하여, 이 글에서는 초기 시의 주조를 이루는 죽음, 혼돈, 일탈의 양상을 우선 검토하고, 『徐廷柱 詩選』에서 선명히 부각되는 삶의 몸짓이 어떤 양상으로 『新羅抄』에 투영되고 있는가를 관련 시편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 초기 시의 분열적 성격

서정주의 초기 시에 두드러진 어둠과 혼란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분열증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花蛇集』의 격렬한 에로스는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두 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대낮」)에서처럼 원초적 충동의 표출이다가, “어찌하야 나는 사랑하는자의 피가 먹고싶습니까”(「雄鷄 下」)에서처럼 가학적 공격 본능에 휩싸인 광증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돈이 규범 일탈을 낳고, 자기 파괴적 충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초기 시의 중심 상황이다. 동물적 에로스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격렬한 정신 착란을 초래하기도 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로 서정주 초기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서정주는 『花蛇集』의 대표적인 작품들인 「西風賦」와 「復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내 『花蛇集』 속의 「西風賦」는 1937년에, 「復活」은 1938년 가을에 쓰여진 것으로 전자에서는 지옥의 긍정을 후자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젊음들 속에 다시 살아나는 내 애인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추구는 그 뒤의 내 시의 세계로도 이어지는 것이다.<sup>14)</sup>

13) 유동식, 위의 책, 66~67면, 참고.

「復活」이 죽은 애인의 환상과의 조우를 그렸다면 「西風賦」의 주제적 윤곽과 맥락 또한 그와 비슷하다. 「西風賦」의 “나의 여자” 또한 동일 인물의 변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추관계를 초기 시에 적용할 때 죽은 애인의 혼령으로 볼 수 있는 여성 인물들은 의외로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서정주의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이 인물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판단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의 술회에 나타나듯 이 여인들은 환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낸다. 무의식의 콤플렉스들이 상징적 심상으로 화자의 의식에 출현하는 것이다. 서정주는 이 인물들을 민간신앙이 알려주는 대로 ‘귀신’이라 여긴 것 같다. 그리하여 “한 번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주소에서 너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復活」)에서 보듯 귀신은 우선 외계에서 범접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한국 무속의 귀신관 그대로이다. 그러나 귀신의 문제는 정신의학자들의 견해로는 인간 내면의 문제이고 귀신의 거처는 무의식의 심층이다. 분석 심리학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우리 무의식에도 발견되며,<sup>15)</sup> 그것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억압된 콤플렉스가 다시 의식으로 떠오른 결과라고 설명한다.<sup>16)</sup>

서정주의 시에서 이 여성 환상은 환청을 동반한다. 그것은 귀신의 부름, 악기음, 새소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귀신이 콤플렉스의 상(像)이듯이 환청 또한 무의식에서 전해오는 격렬한 분열의 소리이다. 이러한 분열증은 한국 무속의 신병 사례와 적절히 부합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체험을 환성을 발하듯 옮겨놓은 것이 서정주의 시라는 견해가 가능하다. 그가 “논리를 벗어난 말을 무당이 공수를 주듯이 늘어놓았다”<sup>17)</sup>는 조동일의 설명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접신 현상이 지옥 체험이기도 함을 「西風賦」는 보여준다.

서녘에서 부러오는 바람속에는

14) 서정주, 「花蛇集 시집」, 『현대시학』, 1991.7, 37면.

15)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4, 26면.

16) 이부영, 위의 책, 55면.

17) 조동일, 앞의 책, 407면.

오갈피 상나무와  
개가죽 방구와  
나의 여자의 열두발 상무상무

노루야 암노루야 해낭노루야  
넉발톱에 상채기와  
통수스소리와

서서 우는 눈먼 사람  
자는 관세음.

서녘에서 부러오는 바람속에는  
한바다의 정신스 병과  
징역시간과

- 「西風賦」 전문

서정주의 시에서 “서녘”은 예외 없이 죽음의 세계이다. 그곳은 외할아버지가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바다가 있는 곳이고(「自畫像」), 죽은 임이 떠난 ‘西域’과 ‘巴蜀’으로 대표되는 저승 세계(「歸蜀途」)이다. 그렇기에 1연 2~4행은 현실의 광경이 아니라 유계의 “바람”이 되살려놓은 과거의 영상이다. “나의 여자”는 생시에 사당이거나 무녀였던 것 같다. “오갈피 상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 북소리에 맞춰 상모를 돌리며 춤추는 모습에서 이를 짐작해볼 수 있다. 화자는 그녀를 “해낭노루”라 비유적으로 호명한다. 바람기 많은 암노루로 불린 여자는 사당이나 무녀의 신분과 행태에 적절히 부합한다. “상채기”는 그녀의 고통과 죽음을 암시한다. 죽은 애인은 이렇게 생시의 기억을 고스란히 거느린 환상으로 나타나며 북소리, “통수스소리”의 격렬한 환청을 동반한 채 화자에게 엄습한다. 그에게 이것은 내면의 지옥이다. 서정주가 “지옥의 긍정”이라고 회고한 것은 이 괴로운 분열증을 고스란히 견디고자 했다는 뜻일 것이다. “눈먼 사람”이 말해주듯 화자는 환상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들림의 상태에 처해 있고,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조차 도와줄 수 없는 처

지이기에 “서서 울”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의 지옥도를 그는 “정신수병”이라 여기고, 견디기는 하되 벗어날 길은 없다는 절망감에서 “징역시간”으로 표현한 것 같다.

환상과 환청을 유발하는 여성 인물들은 「桃花桃花」에서는 “내 裸體의 에레미아서/ 昆盧峰上의 强姦事件들”에서 보이듯 파격적인 성적 환상과 더불어 나타나고, 「밤이 깊으면」에서는 더욱 선명한 귀신 형상을 하고 화자의 의식을 사로잡는다.

뒤안 술밭의 술나무가지들,  
거기 감기는 누우런 새끼줄을,  
영기는 먹구름을, 먹구름먹구름 속에서 내이름字부르는소리를, 꽃의이  
름처럼연겘어연겘어서부르는소리를,  
혹은 그러헌 너의總命을.

화자는 “淑”의 죽음 장면을 강박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연인의 죽음이 초래한 외상이 죽음 장면을 거듭하여 빚어내는 원인일 것이다. 죽어가면서 숙은 연거푸 “내이름자”를 부른다.

이 밤속의밤의 바람壁의 또밤속에서  
한마리의 산 귀뿔이와같이 가느다라니肉聲으로 나를 부르는 것.  
忠淸道에서, 全羅道에서, 비나리는港口의어느內外酒店에서,  
사실은 내 脊髓神經의 한가운데에서,  
씻허연 두줄의잇발을내여노코 나를 부르는것.  
숨은人類의 全身의소리로서 나를부르는것.  
한개의鍾소리와같이 電線과같이 끊임없이부르는것.

시의 후반부에서 숙은 이제 혼령으로 되살아나 그녀가 해매었던 바깥 먼 곳에서 “나”를 부른다. “씻허연 두 줄의 이빨을 내어놓고”라는 묘사가 알려주듯 숙은 참혹한 귀신의 모습을 하고 화자에게 엄습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이 귀신 현상이 자기 내면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내 脊髓神經의 한가운데에서” 나타난 환상이고 그런 점에서 무의식의 콤플렉스이며,

따라서 쉽 없이 화자를 부르는 환청은 그의 마음의 심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그것은 “鐘소리”, “電線”과 같이 그의 온 정신을 진동시키고 분열시킨다.

이 시에 그려진 귀신 형상은 서정주 시의 시적 화자와 혼령의 관계가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불화와 갈등, 격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성질의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네 생각을 인제는 끊고/ 시퍼런 短刀의 날을 닦는다”(「밤이 깊으면」)는 결연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병증의 치유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이유이다. “이런 것들의 추구는 그 뒤의 내 시의 세계로도 이어지는 것”이라는 앞의 진술을 수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정주 초기 시의 여성들은 죽은 이의 녀으로 원귀와 같은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을 ‘귀신’으로 인식한 사실 자체가 서정주의 무속적 체질을 알려준다. 귀령 체험이 격심한 분열증과 착란 증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또 ‘처녀귀신’ 자체가 산 사람을 해치는 대표적인 악신이기 때문에 이 존재와의 동거는 고통 그 자체가 된다. 이러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서정주 초기 시의 절망의 몸부림을 낳고 죽음 충동에 이어진다. 두 번에 걸친 정신 착란과<sup>18)</sup> 한국전쟁기의 자살 기도<sup>19)</sup>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체험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여성 심상의 변모와 하늘의 의미

서정주가 『徐廷柱 詩選』의 단계에서 혼란과 절망을 넘어 생의 의욕을 발견했다는 것은 귀령 체험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겨냈음을 뜻한다. 그 과정은 가령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나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과 같은 작품에 드러나듯 무속을 수용하여 무속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풀리는 한강 가에서」의 부활의 몸짓, 「鶴」의 견인적 의지, 「無等을 보며」의 넉넉한 낙관의 세계가 펼쳐진다.

18)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61면.

19) 서정주, 『미당 자서전』, 2권, 민음사, 1994, 310-313면 참고.

이 시기의 변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시의 귀령적 여성들은 중기 시로 나아가면서 점차 귀기를 덜어내고 친숙한 이미지를 띤 인물들로 변모한다. 괴로운 분열 증세가 가시어지고 평명한 심경의 소산인 손위 여성들, 설화나 고전 속의 인물들이 여성 심상군의 중심에 자리한다. 둘째로, 수다한 환청들이 점차 가라앉아 내면의 분열보다는 모종의 정신적 모색을 암시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런 객관화의 과정은 서정주 내면의 혼란에 종교적 성찰이 기울여진 결과로 짐작된다. 그의 정신 혼란이 무속적 체험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보면 이러한 변모를 내면의 병증을 치유하고 사제자로 거듭나는 무당의 성무 과정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추구의 대상으로 ‘하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피의 혼돈을 덜어내고 관조의 거리와 옥빛의 넓이로써 도달한 자유의 공간”<sup>20)</sup>이라는 해석이 알려주듯 형이상학적 탐구의 성격을 띤다. 하늘은 더 이상 “소리없은채 널롱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히 무려뜯어(「花蛇」)에서 보이는 저주의 대상은 아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이 새겨진 시에 「나의 詩 와 「光化門」이 있다.

어느해 봄이던가, 머언 옛날입니다.

나는 어느 親戚의 부인을 모시고 城안 冬栢꽃나무그늘에 와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호화로운 꽃들을 피운 하늘의 部分이 어딘가를

아시거나 하는듯이 앉어계시고, 나는 풀밭위에 흥근한 落花가 안씨러워

쫓어모아서는 부인의 펼쳐든 치마폭에 갖다놓았습니다.

쉬임없이 그것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뒤 나는 年年히 抒情詩를 썼읍니다만 그것은 모두가 그때 그 꽃들을

주셔다가 디리던-- 그 마음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일인지 나는 이것을 받아줄이가 땅위엔 아무도 없음을 봅니다.

내가 쫓어모은 꽃들은 제절로 내손에서 땅위에 떨어져 구울르고 또 그런마

20) 김화영, 앞의 책, 62면.

음으로밖에는 나는 내詩를 쓸수가없습니다.

- 「나의 詩」 부분

“冬栢꽃나무”라는 소재와 부인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에서 무속적 발상이 묻어난다. 무속만큼 꽃을 중시하는 종교도 없다. 우리 무속에서 꽃은 강신의 수단인 신대, 혼대의 기능을 하며 동시에 신체(神體)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sup>21)</sup> 꽃이 신대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동백’도 ‘동백꽃’도 아닌 “冬栢꽃나무”는 이를 최대로 강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꽃들을 피운 하늘의 부분이 어딘가를” 아는 듯하다는 것은 부인이 하늘의 섭리 또는 초월자의 정체를 감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녀는 여사제나 여신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sup>22)</sup> 그렇기에 열성으로 “落花”를 주워다 바치는 2연의 화자의 태도는 호의나 애정 표현의 수준을 넘어 경건한 종교적 섬김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다.

3연은 화자의 詩作이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일관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4연은 더 이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 상실의 처지를 알려준다. 그 결과 시업은 쓸모없이 낙화만 양산하는 처연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꽃을 받아줄 사람이 “땅위엔 아무도 없”다는 데서 숭배의 대상이 화자의 정신 속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능력과 존재 의의가 만상의 배후에 선 초월적 거점인 하늘과의 소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와 근사한 정신적 모색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된다.

「光化門」은 하늘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한다.

光化門은

차라리 한체의 소슬한 宗教.

조선 사람은 혼이 그 머리로부터 원뿔에 사무쳐 오는 빛을

마침내 보선코에서까지도 떠바뜰어야할 마련이지만,

원하늘에 넘쳐흐르는 푸른 光明을

光化門-- 저같이 으젓이 그 날개쪽지우에 실사고 있는者도 드물라.

21)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2권, 넥서스, 2004, 340-344면 참고.

22) 이 시의 모델이 된 장모에 대해 서정주는 “모든 규모가 크고 의젓해 여신에 방불한 데가 있”다고 술회한 바가 있다(서정주, 『서정주 자서전』, 2권, 68면).

上下兩層의 지붕위에  
 그득히 그득히 고이는 하늘.  
 위層엿것은 드디어 치-르 치-르 넘쳐라도 흐르지만,  
 지붕과 지붕사이에는 新房같은 다락이 있어  
 아래層엿것은 그리로 원통 넘마들마련이다.

玉같이 고으신이  
 그 다락에 하늘 모아  
 사시라 함이렸다.

고개 숙여 城옆을 더듬어가면  
 市井의 노랫소리도 오히려 太古같고

문득 치켜든 머리위에선  
 파르르 쪽지치는 내 마음의 메아리. ……

- 「광화문」 부분

1연에서 “光化門”은 “宗教”로 은유되었다. 전래 광명사상의 모티프가 “빛”을 매개로 하여 투영된 결과이다. “光名”을 숭배하는 것은 민족 보편의 심성인데, 그것을 몸에 구현한 상징이기에 광화문은 종교적 위엄과 깊이를 부여받는다. “하늘”이 곧 광명이므로 3연에서 건물 “지붕에 내려와 고이는 하늘”은 바로 빛이고, 혁거세의 건국이념인 광명이세<sup>23)</sup>의 재현이 된다. 위층의 지붕에 내려온 하늘은 아래로 넘쳐흐르고 아래 지붕의 하늘은 두 지붕 사이의 다락으로 넘쳐 오른다. 광화문은 “上下兩層”의 계층 구분을 지녔으므로 그 구분을 스스로 지움으로써 화합의 터전이 된다고 화자는 생각한다. 이는 군민이 차별 없이 동고동락하던 이상 사회의 비유이다.

4연 첫 행의 “玉같이 고으신이”는 하늘과 인간, 사회 상층과 하층의 융합

23) 유동식은 광명신앙이 신라인의 중심적인 종교 관념이었음을 혁거세의 다른 이름인 ‘불거내(弗거內)’가 광명한 ‘밝왕’을 뜻한다는 점을 들어 밝히고 있다(『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51면).

을 소임으로 하는 사제자적 유형의 인물일 것이다. 그와 같은 인물의 존재를 필수로 하는 사회가 이상 사회라는 암시가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연에서 화자는 소란스런 “市井”을 고요하고 먼 “太古”의 시간대로 느껴면서 수천 년 전의 과거세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과거의 하늘이 바로 신라의 하늘이다.

「나의 詩」와 「光化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나의 詩」의 하늘은 사물의 배후에 존재하는 신의 섭리에 대한 접근을 동기로 한다. 「光化門」은 광명사상을 찬미하고 그것이 현실의 이념이었던 과거 신라의 하늘로 비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무교의 시대로 도약하려 하는 이러한 의식지향이 「나의 詩」의 종교적 기원을 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은 모두 ‘신라’에 대한 관심을 암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른바 ‘신라정신’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선 서정주 자신의 설명에서 구하는 것이 간명하고 자연스럽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통’이라는 것, 달리 전해오는 말로 하면 ‘혼교’라고도 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 고대정신이 현대와 다른 가장 큰 특질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역사의식과 우주 의식의 본질이 우리 현대인과 달랐던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흔히 역사의식을 산 사람들의 현실만을 너무 중시하는 나머지, 과거사란 한참고 거리의 문헌유적을 제외한다면 망각된 무로서 느끼고 살지만, 우리의 고대인들은 사후 후대에 이어 전승되는 마음의 흐름을 혼의 실존으로서 인식하고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역사의식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빚어져 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혼에 대한 실감을 우리가 그 생전의 언행과 얼굴을 아는 사람에 限해서만 절실히 하고 있는 게 보통이지만, 우리 고대인들은 혼의 영원한 실존적 계속적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던 사람이 아닌 아주 먼 세월 전의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도 간절한 실감으로 접했었다.<sup>24)</sup>

24) 서정주, 「한국적 전통성의 근원」, 『서정주 문학전집』 2권. 일지사, 1972, 300면.

위의 인용문이 알려주는 것은 우선 그의 관심이 ‘혼이 곧 귀신’이라는 인식 위에서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혼=귀신’의 변함없는 지속과 이 존재와의 교섭 가능성을 그가 세계관적 차원에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시의 귀령 체험이 무속과 불교의 토양에서 빚어진 『三國遺事』의 신비주의에 투사된 결과이다. 「나의 詩」와 「光化門」의 하늘은 바로 이 영통주의라는 독특한 의장을 입고 『新羅抄』에 나타난다.

『新羅抄』의 여성 인물들은 혼교의 주체로서 여무 또는 여신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善德女王的 말씀」은 죽은 여왕의 혼령이 시의 목소리 주인이 되어 있고, 사소(娑蘇)는 신선 수행의 체험자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인물들이 발화의 주체가 되어 있는 시편들에서 하늘은 그들의 거소이거나 종교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신비지대로 나타난다. 특히 사소 연작에는 여무에 해당하는 인물이 초월계와 교섭하는 양상이 두드러져 신라의 하늘이 곧 무속의 하늘임을 암시한다.

꽃아. 아침마다 開闢하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門에 기대 섰을 뿐이다.  
 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  
 벼락과 海溢만이 길일지라도  
 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

- 「꽃밭의 獨白」 부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내장한 상징이다. 그것은 늘 열리지만 열림의 안쪽은 화자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우주 탄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기에 화자는 “닫힌 門”에 기대어 거듭해서 꽃을 향해 “門 열어라”고 외침 뿐이다. “벼락”과 “海溢” 같은 거대한 힘 없이는 열고 들어갈 길 없는 불가항력의 장벽 앞에 선 화자의 처지는 종교적 열망과 기원에 관련되어 있다. 사소의 이상한 몰입은 그가 일반인과 다른 정신 상태의

소유자임을 알려준다. 이어지는 「娑蘇 두 번째의 편지 斷片」에서 “피가 잉 잉거리던 病”이라고 스스로 진단한 데서도 이는 드러난다.

한국 무속의 우주관은 무한 영원의 카오스와 유한한 코스모스를 구별하면 서도 하나의 전체로 보는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sup>25)</sup> 이는 곧 둘 사이의 교류 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관계는 죽음과 삶, 저승과 이승,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로 치환 가능하다. 죽음, 저승, 무의식의 세계에 개방된 정신 상태가 곧 무속적 분열증의 상태이다. 미쳐서 쫓겨난 공주 이야기가 우리 무속의 전승에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사례<sup>26)</sup> 또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문 너머의 세계는 곧 종교적 깨달음의 시공이다. 이렇게 파악된 하늘은 아래에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피가 잉잉거리던 病은 이제 다 낳았습니다.

올 봄에  
매(鷹)는,  
진갈매의 香水의 강물과 같은  
한섬지기 남짓한 이내(嵐)의 발을 찾아내서

대여섯 달 가꾸어 지낸 오늘엔,  
홍싸리의 수풀마냥. 피는 서적이다가  
翡翠의 별빛 불들을 켜고,  
요즈막엔 다시 生金の 鑛脈을 하늘에 펴니다.

25) 김태곤, 앞의 책, 299면.

26) 추엽 용과 직송지성은 무조전설(巫祖傳說)의 유형을 성모(聖母)무조전설, 왕녀(王女)무조전설, 귀녀(貴女)무조전설, 왕(王)무조전설의 넷으로 나누고, 왕녀무조전설의 사례로 미쳐서 쫓겨났다가 성무하는 공주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들의 발광, 병, 정신 이상이 무병임에 틀림없고 산간에 숨어 지내다 영력을 얻어 무당이 되는 것은 입무 과정의 사례라 소개하고 있다(『조선무속의 연구』, 하권,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12-34면 참고).

아버지.  
 아버지에게로도,  
 내 어린 것 弗居內에게로도, 숨은 弗居內의 애비에게로도,  
 또 먼 먼 즈믄해 뒤에 올 젊은 女人들에게로도,  
 生金 鑛脈을 하늘에 펴니다.

- 「娑蘇 두 번째의 편지 斷片」 부분

이 작품에서 화자 사소는 수행에 몰두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질환을 치유하고 신비로운 정신적 성취를 얻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녀는 자신의 출가 및 수련의 동기가 “피가 잉잉거리던 病”이었고 이제 그것이 나왔음을 선언적으로 전한다. 병을 몸 밖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치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피”는 서정주 시의 출발에 아로새겨진 개인적 원형으로 내면의 혼돈과 광증을 유발하는 동력원으로 기능해왔다. 서정주의 시적 여정이 “자신의 ‘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하는 고된 싸움의 과정”<sup>27)</sup>이라는 소견은 서정주 시에서 피의 동력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명하게 환기해 준다. 이를 고려할 때 사소 연작은 기실 서정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시적 형상화라 추정할 수 있다.

2~4 행은 수행 과정과 그 성취에 대한 비유이다. 사서의 기록대로 화자 사소는 매의 인도를 받아 “이내(嵐)의 발”에서 정진을 거듭한다. 이내가 신선의 양식이라는 서정주 자신의 설명<sup>28)</sup> 자체는 이 시의 신비주의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병이 나아가는 양상은 피가 희석되어 가는 과정에 비유되어 있다. 피는 우선 수련이 깊어가면서 “홍싸리의 수풀”처럼 열어진다. 초기 시의 격렬한 분열음들이 수목의 ‘서걱임’으로 잦아든 것도 유념할 만한 대목이다. 이와 같이 다스려진 내면을 시적 화자는 어떤 신비로운 정신성에 연결 지으려 한다. 그것은 내면의 피가 천상의 “별빛”으로 승화되는 질적 전이의 양상으로

27) 천이두, 앞의 글, 51면.

28) “이 빛깔은 우리가 늘 보는 코발트의 하늘 빛하고는 아주 다른 빛이고 그건 풀빛에 가깝지만, 또 아주 깊이깊이 몇천 길같이 빛나는 풀빛이다. 이것이 이내다. 옛 신선들이 그들의 어떤 전답으로, 아니면 내려와 숨쉬어 가끔 마시던 것으로 정했던 그 이내인 것이다”(서정주, 『서정주 자서전』, 2권, 321면).

그러진다.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병고를 이김으로써 얻게 된 빛나는 지혜는 이처럼 세속과 천상, 인간과 우주의 구별을 넘어 상호 조응의 관계를 밝혀 준다. 별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사람이 별로 상승 고양되는 신비 체험은 “鑛脈”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가 별의 단단한 광물성과 동질화되려면 인간의 기맥 자체도 이와 비슷한 속성을 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별의 이동 통로인 “生金 鑛脈”은 3연에서 “하늘”을 향해 펼쳐진다. 이것은 힘겹게 거둔 지혜의 전시이고, 수련 체험과 연관된 인물들을 초월자적 시선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사소는 대모신적 존재로 변신하는 것 같다. 자신을 떠나보낸 아버지, 새로 낳은 자식과 그 “애비”를 비롯하여 이천여 년의 세월을 격해 자신과 같은 운명에 놓일 “젊은 여인들”에게까지 사소는 지혜의 별빛을 “生金 광맥”을 통해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서정주는 자신의 영생주의의 요체를 ‘영통’과 ‘혼교’로 설명한 바 있고, 이를 민족 전래의 종교인 풍류도, 신선도에 연결시켰다. 유·불·선 삼교의 종합상으로서의 풍류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그것이 신인융합의 원리를 분류로 하고 외래 종교와의 습합을 통해 성립한 종교 사상이자 치세 이념<sup>29)</sup>이란 점에서 사소의 신선 수행은 전래 무교의 특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녀가 무신(巫神)으로 오늘날까지 섬겨진다는 점<sup>30)</sup>에서도 그러하다. 무교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곧 현대 무속의 경우에는 무당이 된다는 뜻이고, 심신의 병고와 싸워 스스로를 치유한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사소의 광증은 이처럼 무속적 정신 분열의 고대적 사례이고 그녀와 유사한 정신적 체질을 지닌 서정주는 자기 내면의 문제를 그녀의 체험에 투사한 것이다.

사소의 하늘은 무교적 수련을 통해 도달하는 지혜와 섭리의 하늘이다. 여기에 깃든 포용의 정신은 「선덕여왕의 말씀」에 그려진 자애와 공휼의 현세주의와도 상통한다. 「나의 詩」와 「光化門」에 암시된 하늘은 이 시에 이르러

29) 유동식, 「한국무교의 종교적 특성」, 김인회 외, 앞의 책, 143-144면 참고.

30) 조현설은 사소, 즉 선도산신모를 ‘전통적 무속신앙의 여신’, ‘무속의 산신’으로 보고 있다(「모화주의가 부른 건국신화의 재구성」, 『한겨레신문』, 2005년 3월 4일자).

그 실상을 드러낸다. 그것은 한편으로 「나의 詩」에 깃든 무속적 모티프의 역사적 재현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光化門」의 이상 사회인 신라의 발견이기도 하다. 이 두 작품이 품었던 상승의 욕구는 이와 같이 실현되었고, 그렇게 하여 빚어낸 신라의 무교적 시공은 다시 “먼 먼 즈믄해 뒤” 서정주 당대의 하늘로 내려오게 된다. 서정주의 신라 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현재화된다.

#### 4. 종소리, 별, 광맥의 비유체계

『徐廷柱 詩選』의 생 의지를 집약하고 이후 시의식의 지향을 선명이 보여주는 작품이 「上里果園」이다. 이 시는 삶을 긍정하려는 의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극한 인생 예찬을 표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대 漢江水나 洛東江上流와도 같은 隆隆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알의 얼굴들로 볼진대 우리 조카딸년들이나 그 조카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질겨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트리는 몸뚱어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네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카락이 가슴팍이뿐 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사 굽치에까지도 이쁜 꽃송어리들을 달았다. 땀새, 참새, 때까치, 피꼬리, 피꼬리 새끼들이 朝夕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十數萬마리의 꿀벌들이 원종일 북치고 소구치고 마짓곳 울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속에 묻혀 자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當然한일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했으면 좋겠는가. 무쳐서 누어있는 못물과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취고 누어서, 때로 가냘팍게도 떨어져네리는 저 어린것들의 꽃뛈사귀들을 우리 몸우에 받아들여도 볼것인가. 아니면 머언 山들과 나란히 마조 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油頭粉面과, 한낮의 춤과, 黃昏의 어둠속에 이것들이 자자들어 돌아오는-아스라한 沈潛이나 지킬것인가.

하여간 이 한나도 서러울것이 없는것들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微物하나도 없는곳에서, 우리는 서빨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걸 가르치지말일이다. 저것들을 祝福하는 때까치의 어느것, 비비새의 어느것, 벌 나비의 어느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송어리의 어느것에 대해 우리가 행동 나직이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것이 깃들어서 있던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에의 完全歸巢가 끝난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것들과 山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제일 가까운곳의 별을 가리켜 晝일일이요, 제일 오래인 鍾소리를 들릴일이다.

- 「상리과원」 전문

이 시는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통한 슬픔의 극복을 노래한다. 그것은 미시적 관찰을 통해 묘사된 첫 단락의 “꽃밭”이 보여주듯이 자연의 향연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누리는 시적 화자의 혼연한 마음가짐에서 비롯한다. 꽃들과 새들은 본능을 따라 서로 어울리고 탐닉하며, 이 “질거운 웃음판”을 신령 강림을 축원하는 듯한 황홀경의 窠판으로 고양시킨다. 자연의 무구한 영위에 동화된 화자에게 생명의 기쁨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은 “서름”을 통해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어린 꽃잎들을 몸으로 받아보려는 연민으로도, 꽃밭의 바깥에서 관망이나 하는 “沈潛”으로도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네 번째 단락은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걸 가르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 시에 이르러 초기 시를 지배해 온 혼란과 어둠은 자취를 감추었고, 종소리, 새소리 등의 격렬한 환청들은 새와 벌들이 합창하는 축제의 음악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단락은 기쁨을 삶의 원리로 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서정주의 가장 핵심적인 대답을 보여준다. 그것은 삶의 어둠에 대하여 “제일 가까운곳의 별”과 “제일 오래인 鍾소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별과 종소리의 함의는 이 시의 테두리 안에서는 거의 해독되지 않는다. 별의 공간적 좌표와 종소리에 담긴 시간의 기원은 한편으로는 『新羅抄』의 전통 의식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시의 정신적 혼란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별은 「娑蘇 두 번째의 편지 短片」에서 살폈듯이 정신 수련을 통해 얻게 되는 무교적 깨달음이자 긍휼과 포용의 치세 원리였다. 시적 화자는 그 별이 가장 가까이 내려왔을 때를 특별히 주목하여 삶의 규범으로 제시한다. 그것의 대표적 사례가 「韓國星史略」에 제시되어 있다.

千五百年 乃至 一千年 前에는  
金剛山에 오르는 젊은이들을 위해  
별은, 그 발말에 내려와서 길을 쓸고 있었다.  
그러나 宋學 以後, 그것은 다시 올라가서  
추켜든 손보다 더 높은 데 자리하더니,  
開化 日本人들이 와서 이 손과 별 사이를 虛無로 塗壁해 놓았다.  
그것을 나는 單身으로 側近하여  
내 體內的 鑛脈을 통해, 十二指腸까지 이끌어갔으나  
거기 끊어진 곳이 있었던가,  
오늘 새벽에도 별은 또 거기서 逸脫한다. 逸脫했다가는 또 내려와 貫流  
하고, 貫流하다간 또 거기 가서 逸脫한다.  
腸을 또 꿰매야겠다.

- 「한국성사략」 전문

이 시는 인간과 천상의 상호 조응이 삶에 편만했던 신라의 정신문화를 거론한다. 우주 자연의 숨은 진리가 결코 인간에게 낯설고 먼 것이 아니었던 시대에 대한 애정이 이런 주술적 발상을 낳은 것이다. 별이 인간의 “발말에 내려와서 길을 쓸고 있었다”는 진술은 「혜성가」의 인유로서 『三國遺事』의 설화적 신비주의를 사실 차원에서 수용한 결과이다. 이 설화적 보편성의 세계는 그보다 더 과학적인 주자학적 우주관의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현대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우주관의 힘에 접하면서 본래의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화자의 인식이다. 그리고 이를 정신적 타락으로 보고 주술 시대의 지혜를 현재에 구현하려 하는 노력이 작품 후반부의 내용이다. 그 상상적 작업의 내용과 논리는 예의 사소가 행하던 수련법 그대로이다. 천상의 지혜는 인간의 “體內的 鑛脈”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다. 불변의 진리는 그것을 원하는 자에

게 그만큼의 정신 수련을 요구하고, 신체를 견고한 광물성으로 바꾸지 않고는 수용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소의 경우와는 달리, 화자는 별에 “側近”은 하고 감응은 하지만 별과 혼연일체가 되지는 못한다. 별을 체내에 들이려는 노력이 실패에 이르는 것은 작업 자체의 비현실성, 비과학성에 기인한다. 고대의 주술적 지혜가 현대의 정신 규범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영매가 되어버린 듯하다”<sup>31)</sup>는 김종길의 비판은 바로 이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腸”은 헐고 별은 다시 하늘로 달아나버리지만 화자는 이 무모한 노력을 계속하리라 다짐한다. 이처럼 서정주는 「上里果園」에서 “제일 가까운곳의 별을 가리켜 蝓일일”로 제시했던 과제를 『新羅抄』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사소가 아득한 과거에 켜 “별빛”, 그리고 “生金鑛脈”을 서정주 자신의 심혼에 받아들여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종소리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적 화자에게 엄습하는 외계의 환청, 다시 말해 화자 내면의 분열음을 대표한다.

파축의 우름소리가 그래도 들리거든  
부끄러운 귀를 꺾어 버리마

- 「葉書」 부분

미친하늘에서는  
미친 오펙이리아의 노래소리 들리고

- 「桃花桃花」 부분

감지 못하는 눈은 하늘로, 부흥...부흥...부흥아 너는  
오래전부터 내 머리속 暗夜에 동그란 집을 짓고 사렸다.

- 「부흥이」 부분

鍾보단은 차라리 복이 있습니다.

- 「滿洲에서」 부분

31) 김종길, 「시와 이성」, 『문학춘추』, 1964. 8, 275면.

멀리 서 있는 바닷물에선  
난타하여 떨어지는 나의 鐘 소.

- 「行進曲」 부분

서러운 서러운 옛날 말로 울음 우는 한 마리의 뺨꾸기새.

- 「밤이 깊으면」 부분

한 개의 鍾소리와같이, 전선같이 끊임없이 부르는 것.

- 「밤이 깊으면」 부분

분열음의 다양한 사례들은 위와 같다. 그것은 저승에서 들려오는 “우름소리”이거나 미쳐서 죽은 여자의 넋이 부르는 “노래소리”이다. “귀를 깎아 버리마”라는 다짐은 환청이 화자 내면의 강박증에 뿌리를 둔 현상임을 알려준다. 환청은 논리적 맥락을 벗어난 소리이므로 “부흥이 울음”이나 “뺨꾸기 울음”과 같은 자연음으로 변주되거나 더 요란하고 격렬한 악기음으로 발전한다. “鐘소리”는 가령 「西風賦」의 북소리, 통소 소리와 같은 분열음이 극에 달한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신병자의 환청 가운데 악기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이 무속적 체험과 이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환청 자체가 서정주 당대의 문화적 여건에서는 신병 증세로 간주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환상=귀신’을 보고 환청을 듣는 정신 상태야말로 신병 현상과 임상적으로 부합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무당 본연의 자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소리가 서정주 개인의 무속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심상이라면 “제일 오래인 鐘소리”는 자연스럽게 무속의 역사적 맥락에 접합하게 된다. 그것은 무속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시사한다. “무당이나 판수들이 몇 푼씩 받는 값으로 죽어 간 자의 혼을 대변하기까지 뛰고 노래 불러 두 눈에 눈물이 들 때까지 계속하는” 오늘날의 타락한 무속에 대한 서정주의 비판<sup>32)</sup>, 그리고 6

32) 서정주, 「한국적 전통성의 근원」, 『서정주 문학전집』 2권. 일지사, 1972, 299면.

세기 신라 여승 지혜의 꿈에 나타난 선도산신모의 사례를 이와는 다른 “아주 조용한 것”으로 거론한 사실<sup>33)</sup>을 이러한 추리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무속을 예술화하는 과정에서 체험에 충실했던 것이 서정주의 예술가적 기질이었을 것이다. 그가 「上里果園」에서 종소리를 가장 유서 깊은 인생관의 표지로 제시했던 것은 이처럼 자신의 내적 진실을 엄연히 존재했던 전통의 맥락에 연결 지으려는 존재론적 요청이었던 셈이다. 이 종소리는 정작 『新羅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두 쟈나무 사이, 걸린 해마냥  
지, 징, 지, 따, 쟈,  
가슴아  
인젠 무슨 金銀의 소리라도 해 보려무나.

내 閼氏는 이미 물도 피도 아니라  
마지막 꽃밭 蒸發하여 괴인  
시퍼렇디 시퍼런 한 마지기 이내(嵐)!

간대도, 간대도,  
西方 金色界라든가 뿔이라든가  
그런 데로 밖엔 쓸릴 길조차 없으니.

가슴아. 가슴아.  
너같이 말라 말라 鑢脈 양상한  
메마른 閼氏를 오늘 아침엔 데리고  
지, 징, 지, 따, 쟈  
무슨 金銀의 소리라도 해 보려무나.

- 「두 쟈나무 사이」 부분

종소리가 더 깊은 내면의 소리가 된 것이 바로 “金銀의 소리”이다. 여기에

33) 서정주, 위의 책, 300면.

는 내적 분열을 종교적 깨달음으로 변환시키려는 수행의 노력이 스며 있다. 그것이 「娑蘇 두 번째의 편지 斷片」, 「韓國星史略」의 작업과 동궐에 놓인 것은 물론이다. 이 시에서 화자와 “閻氏”는 ‘말라서 앙상한 鑛脈’의 소유자이다. 이 사실 자체가 둘의 동질성을 뜻하면서 고행에 가까운 내적 수련을 암시한다. “가슴”이 곧 「韓國星史略」의 “體內”이고 광맥이 혼교의 통로이므로 “金銀의 소리”는 무속의 견지에서 보자면 집신 상태의 망아경에서 체험하는 빛과 소리를 동시에 환기한다. 이러한 체험이 세속의 논리를 벗어난 것이기에 영혼의 본향인 극락세계, 즉 지장보살이 관장하는 “金色界”를 지향할 뿐이다. 혼령의 서식처인 꽃밭이 혼령으로 화하여 고인 “이내(嵐)”가 곧 각시라는 점에서 오래 그를 괴롭혀온 혼령이 구도의 동반자 또는 신격(神格)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소리는 종교적 수행과 그 성취의 과정에 필수적인 청각 효과로 기능한다. 이 내면의 초월 지향을 더욱 치열하게 감각화하면,

별아, 별아, 해, 달아, 별아, 별들아.  
 바다들이 닳아서 하늘 가며는  
 차돌같이 닳아서 하늘 가며는  
 해와 달이 되는가. 별이 되는가.

셋째 窓門 영창에 어리는 것은  
 바닷물이 닳아서 하늘로 가는  
 차돌같이 닳는 소리, 자지른 소리.  
 셋째 窓門 영창에 어리는 것은  
 가마솔이 풀어서 새로 솟구는  
 하이얀 김, 푸른 김, 사랑 김의 떼.

- 「여수」 부분

‘차돌같이 닳는 바닷물 소리’가 된다.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로 승화되려면 바다, 즉 인간의 내면은 그만큼 치열하게 불타고 줄어들어 광물화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는 “鑛脈”과 “金銀의 소리”와 “별”의 관계를 또

한 번 변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無題」는 이러한 수행 자체에 대한 기술이다.

鍾이야 될 테지, 될려면 될 테지  
깨지면 깨진 대로 얼얼히 울어

자네 속 몰라  
애탈 뿐이지  
에타다가는  
녹아갈 뿐이지

一千年 자네 집 門지방에 울더라도  
鍾이야 될 테지, 되려면 될 테지

- 「무제」 부분

“제일 오래인 鍾소리”는 이 시에서 천년의 시공을 넘어서려는 의지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이 천 년 동안 울 수는 없으므로 끝 연 첫 행은 의지의 과장이기 전에 이미 “자네 집”의 역사가 투영된 비유가 된다. 이를 천년 세월을 상거한 신라정신의 세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화자는 아직 “자네 속”을 알지 못하고 “문지방”에 걸려 있지만 이 한계를 허물기 위해 종이 되어 씬 없이 운다. 중요한 것은 ‘종이 된다’는 진술이다. 그는 종이 됨으로써 분열을 넘어 분열음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서정주가 「上里果園」에서 향후의 정신적 지표로 제시한 “제일 가까운곳의 별”과 “제일 오래인 鍾소리”는 시집 『新羅抄』에서 그 특유의 신비주의적 언어 운용을 통해, 그러나 극히 정교한 상상적 작업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신체가 광물로 바뀌고 정신이 광맥으로 변성되는 상상의 문법 안에서 체내의 분열음이었던 종소리는 ‘차돌 닳는 소리’가 되고, 휘황한 ‘金銀의 소리’가 되었다고는 다른 차원의 ‘종소리’로 바뀐다. 광맥이 별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 내면의 소리들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종소리는 별에 도달하기 위한 주문의 역할을 한다. 별이 주술시대의 지혜를 상징한다면 종소리는 이를 내면화하려는 지난한 노력을 은유한다. 이는 물론 현대 무속의 분열증이

고대 무교의 정신으로 승화되는 과정의 형상화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徐廷柱 詩選』과 『新羅抄』의 시세계를 연속성의 견지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두 시집의 단절적 성격에 무게를 두어 온 기존 논의가 서정주의 시적 상상력이 거느린 숨은 맥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이 둘의 연속성이 독특한 정신적 혼란의 표출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 시의 흐름에 깊이 닿아 있고, 그것의 자연스러운 변용임을 확인하였다.

서정주 초기 시의 정신적 혼란과 분열상은 근본적으로 혼령 체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죽은 애인의 녀인 ‘환상=귀신’과 그녀에 의해 생겨나는 다양한 환청들이 특이한 정신역동으로 작용하여 서정주 시의 독특한 주제와 표현을 낳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정주의 정신적 체질은 다분히 무속적이라 할 수 있다.

『徐廷柱 詩選』에는 초기 시의 혼란과 어둠이 가라앉아 가는 양상과 더불어 이러한 체험과 의식에서 자라나왔음에 분명한 종교적·사상적 모색의 단초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서정주 개인의 무속이 그 역사적 원형이라 할 고대 무교의 전통을 찾아가려 했다는 사실의 증거이고, 『新羅抄』는 그 구체적 실천에 해당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글은 ‘하늘과 신라의 발견’, ‘종소리, 별, 광맥의 비유체계’라는 주제 범주들을 설정하여 두 시집의 관련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나의 詩」와 「光化門」의 ‘하늘’은 무교의 지혜가 삶의 규범으로 기능했던 신라 상대의 하늘을 지향한다. 그것은 사소가 무교적 정신 수련을 통해 도달했던 지혜와 포용의 하늘이다. 사소의 하늘은 「나의 詩」에 깃든 무속적 모티프의 역사적 구현이면서 동시에 「光化門」의 이상사회인 ‘신라’의 이념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 초월적 시공은 이천여 년 뒤 서정주 당대의 하늘에 드리움으로써 현재화된다.

두 번째로, 「上里果園」에서 인생론의 표지로 제시되었던 ‘별’과 ‘종소리’는 「韓國星史略」을 비롯한 『新羅抄』의 작품들에서 무교적 지혜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 달성을 위한 정신적 계기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체내의 기맥이 견고한 광맥으로 변성하여 마침내 별과 동질화되는 수련의 과정에 이 다양한 환청들은 흡사 주문과도 같은 종교적 울림을 부여한다.

이상의 논구를 통해, 일견 이질적인 두 시집이 세계 인식 및 상상력의 면에서 역력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新羅抄』의 작업이 그 종교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높은 추상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徐廷柱 詩選』의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을 핵심 내용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 서정주. 『花蛇集』. 남만서고, 1941.  
 \_\_\_\_\_. 『歸蜀途』. 선문사, 1948.  
 \_\_\_\_\_. 『서정주시선』. 정음사, 1956.  
 \_\_\_\_\_. 『新羅抄』. 정음사, 1961.  
 \_\_\_\_\_. 『동천』. 민중서관, 1968.  
 \_\_\_\_\_. 『서정주문학전집』 2권. 일지사, 1972.  
 \_\_\_\_\_. 『서정주문학전집』 5권. 일지사, 1972.  
 \_\_\_\_\_. 『미당서정주시선집』 1권. 민음사, 1983.  
 \_\_\_\_\_. 『미당 자서전』 2권. 민음사, 1994.  
 \_\_\_\_\_. 서정주. 「花蛇集 시절」. 『현대시학』, 1991년 7월호.

### 2. 단행본

- 김태곤. 『한국무속 연구』. 집문당, 1995.  
 김화영. 『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4.

- 김현·김윤식. 『韓國文學史』. 민음사, 1973.
- 유동식.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4.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2권. 넥서스, 200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9.
- 조현설. 「모화주의가 부른 건국신화의 재구성」. 『한겨레신문』, 2005년 3월 4일자.
-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0.
- 추엽웅·적송지성. 『조선무속의 연구』 하권.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 3. 논문

- 고은. 「서정주 시대의 보고 - 『서정주 문학 전집』. 『문학과 지성』, 1973년 봄호.
- 김열규. 「속신과 신화의 서정주론」.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김용직. 「초인의 역정, 또는 마그마 미학」. 『시와 시학』, 1996년 가을호.
- 김점용. 「서정주 시의 미의식 연구 - ‘죽음 환상’과 ‘모성 환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종길. 「실험과 재능 - 우리 시의 현황과 그 문제점」. 『문학춘추』, 1964.6.
- \_\_\_\_\_. 「시와 이성」. 『문학춘추』, 1964년 8월호.
- \_\_\_\_\_. 「서정주시의 특질」. 『시와 시학』, 1996년 가을호.
- 문덕수. 「신라정신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현실성」. 조연현 외.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공사, 1975.
- 오택번. 「서정주시의 비유와 모성심상」. 『사대논집』. 제19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94.12.
- 오태환. 「서정주시의 무속적 상상력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원형갑. 「서정주의 신화」. 조연현 외.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공사, 1975.
- 유동식. 「한국 무교의 종교적 특성」.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이몽희. 「한국 근대시의 무속적 구조 연구 - 김소월·이상화·이육사·서정주를 중심으로」.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이부영.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김인회 외.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 이상오. 「미당 서정주론 - 무속적 사유체계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호원론집』 제8호. 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 2000. 12.

- 이성부. 「서정주의 시세계」. 『창작과 비평』, 1972. 12.
- 이영광. 「서정주 시의 형성 원리와 시의식의 구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조연현. 「원죄와 형벌」. 조연현 외. 『서정주 연구』. 민음사, 1994.
- 천이두. 「지옥과 열반」. 조연현 외. 『서정주 연구』. 동화출판공사, 1975.
- 최하림. 「체험의 문제 - 서정주에게 있어서의 시간성과 장소성(下)」. 『시문학』, 1973.  
2.
-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조연현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황현산.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 『한국문학연구』, 제19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  
구소, 1995.

❖ ABSTRACT

Analysis of Comparison  
between *Seo Jungjoo Shiseon* and *Shillacho*

Lee, Young Kwang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similarity found in Seo Jungjoo's two books of poems, *Seo Jungjoo Shiseon* and *Shillacho*, and thereby to establish the continuity between Seo's early poetry and his mid-period poetry. This attempt arises from the realization that unfamiliar poetic material, background, and narration are merely surface features, and that in fact his early concerns nevertheless persist in terms of his poetic imagination and his Weltanschauung. Furthermore, this continuity seems to originate from shamanistic spiritual chaos that is consubstantially interrelated with the spirit of his deceased lover.

After chaos and confusion subsided, the poet's endeavor to discover the lineal origin of his personal shamanism shows itself in *Seo Jungjoo Shiseon*, and we witness the embodiment of such endeavor in *Shillacho*. His interest in the skies as it is expressed in *my poem*, and Shilla as it is intimated by *Gwanghwamun* are sublimated in *saso yeonjag* and *the words of Queen Seondeog* into shamanic wisdom that served as the norm for both spiritual life and physical life in ancient times, and the wisdom is carried on further into the present in Seo's own times. Moreover, the star and the bell sound that were presented as signs of desirable Weltanschauung in *Sangrigwawon* are transformed into the symbols of shamanic wisdom, and into the inner magic formula that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wisdom.

This analysis offers as its result the evidence embedded in his poems that shows, first, that the two books correspond to merely two separate stages of his poetic concern, and second, that his early poetic concern

persists, though transformed through a peculiar manner, into his mid-period poems.

---

**Key Words**

무속(shamanism), 환상(illusion), 별(star), 광맥(mineral vein), 종소리(bell sound)

논문접수일: 2012. 02. 11.

심사완료일: 2012. 03. 11.

게재확정일: 2012. 03. 16.